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1, 41 - 51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박 경 애 | 김 희 수‡ | 이 화 자 | 김 옥 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상담부 |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본 연구는 가족과 개인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족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이고, 개인변인은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우울이다. 참여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고생 950명이다. 여러 변인들과 인터넷중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은 부적 상관을, 우울과 인터넷중독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울, 자기통제력, 의사소통유형, 문제해결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인터넷 중독,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가족응집력,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우울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으로서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측면도 존재할 것이나, 부정적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발달과정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이나 컴퓨터 사용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지만, 과다사용에 따라 부적응적 행동이나 부절적한 경험을 야기하게 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공격성, 가족간 부적응적 의사소통방식, 무망감등이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요약 발제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희수, (435-742)경기도 군포시 당정도 604-5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Tel: 031-450-5075, E-mail: kimhs@hansei.ac.kr

www.kci.go.kr

건강을 황폐하게 하고 인성개발을 저해하며 다양한 범죄행동을 촉발시키게 된다(주애란, 2006). 그러나 게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볼 때, 초등학생의 부모는 중학생 부모보다 좀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게임사용에 대해 별다른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에 비해 중학생부모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비해 감독적인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매력적인 활력창구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파괴적으로 몰고 갈 경우도 많은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이나 온라인게임 중독의 경우,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인한 보상경험이 사용자로 하여금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하여 중독에 이른다고 한다(장재홍・이은경・장미경, 2004). 여기서 보상경험이란 인터넷을 통해 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한 경험, 스트레스를 잊어 버렸던 경험, 심심할 때에 즐거움을 느꼈던 주관적인 경험(장재홍・유정이・권해수・김형수・최한나, 2002)을 의미하는데, Kraut, Mukhopadhyay, Szczypula, Kiesler 와 Scherlis (1998)는 인터넷 중독의 조절능력 상실은 보상경험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 즉 보상심리에 의해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고 실제로 중독으로 인해 피해사례나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Goldberg(1996)는 DSM-IV의 물질중독의 기준을 준거로 하여 최초로 인터넷 중독장애라는 용어와 개념적인 진단준거를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간주하면서 컴퓨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하였다. 임상심리학자 Young(1999)은 DSM-IV의 '병적도박'의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내성과 금단, 의도한 시간 이상의 인터넷사용,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무시 등을 중독의 진단기준으로 삼았다. 온라인게임을 통한 보상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현실생활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앞으로 출간될 DSM-V에서는 새로운 가상현실장애(Cyber Disorder)라는 유목을 두어 인터넷과 관련된 병리적 현상을 반영할 예정이다(임은미・박승민・장선숙, 2006; Zenhausen, 1995).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2005)에 따르면, 부모들은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게임중독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집안에서 부모가 스스로 게임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아서,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김청택・김동일・박중규・이수진, 2002; 성미나, 2002; 권희경・권정혜, 2002; 허미리, 2003; 윤광숙, 2004; 이현아, 2004; 김진희, 2006).

한편 인터넷 및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최나야・한유진, 2006: 이경님, 2003: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정경란, 2001; 정밀희, 2003; 진영희, 2002: Kraut・Lundmark・Pattersin・Kiesler・Mukopadhyay & Scherlis, 1998)에 따르면 부모의 훈육과 통제가 너무 허술하거나 심할수록, 부모의

www.kci.go.kr

지지가 낮을수록 또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게임 및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향이 높았다. 즉 가족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가족원 모두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석, 2000; 조영, 2003).

한편 인터넷을 통한 문제행동들에 대한 연구(Czikszentmihalyi & LeFevre, 1989)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한 가지에 몰입하는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상공간에서 비중독자에 비해서 우울감을 더 느끼고(윤재희, 1998),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이다. 또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으며(양돈규, 2000), 감각추구경향이 높고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나타낸다(권정혜, 2000; 이유경, 2002). 즉, 충동성이 높고 감각지향성이 높은 개인들, 현실에서 대인관계의 효능감이 낮고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들 및 우울한 개인들은 현실생활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인터넷 게임이나 오락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주로 개인변인을 위주로 살펴보거나 가족변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을 살펴보았지만 변인들 간에는 서로 상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을 함께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개인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인터넷중독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보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수합하였고, 이차적으로 서울시와 수도권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화로 의뢰한 후 수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전체 1,019명 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59명을 제외한 95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중학생은 769명으로 80.94%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은 181명으로 19.6%를 차지한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이 중학생이 362명(47.1%), 고등학생이 103명(56.9%)으로 465명(48.9%)이고, 여학생은 중학생이 407명(52.9%), 고등학생이 78명(43.1%)으로 485명(51.1%)이다.

대상자별 인터넷 중독집단분류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일반 사용자는 714명 92.85%, 잠재적 위험사용자는 39명 5.07%, 고위험 사용자는 16명 2.08%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일반사용자 156명 86.19%이고, 잠재적 위험자는 16명 8.34%이며 고위험 사용자는 9명 5.47%이다.

측정도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을 알아보고자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크게 성별, 학년,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자가

www.kci.go.kr

진단척도, 부모양육태도, 의사소통문항, 가족응집력, 우울,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력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김청택 등(2002)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위탁으로 만든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해석기준에 따라 1~94점은 일반군이고, 95~107점은 잠재위험군이며, 108점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한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95이다.

의사소통 유형검사. 의사소통 유형검사는 Barnes와 Olson이 제작한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진희(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부모님과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를 측정한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92이다.

가족응집력. 가족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Olson, Portner와 Lavee가 만든 FACES-Ⅲ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중 응집성 부분만을 김진희(2006)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응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86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김지신(1996)의 양육행동척도를 이용해서 김혜영(1999)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및 합리성의 6문항만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여 활용하였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79이다.

문제해결력. D'zurilla와 Nezu가 만든 문제해결력검사를 김중술과 김영미(1992)가 번안한 것을 장미영(2006)이 사용한 척도 중 하위영역인 대안산출능력만을 사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대안산출을 잘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80이다.

자기통제력. 남현미(1999)가 Gottfredson과 Hirschi과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력 문항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있고 인내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72이다.

우울. 전겸구와 이민규(1992)의 한국판 CES-D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척도를 박성숙(2006)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α신뢰도계수는 .83이다.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기초자료와 부모의 학력, 가족과의 대화시간, 인터넷중독 프로그램의 참여여부 등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가족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과 개인변인인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www.kci.go.kr

과 우울과 인터넷중독의 상관관계와 보았다. 또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결 과

가족, 개인변인과 인터넷중독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의 가족변인과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우울의 개인변인과 인터넷중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족, 개인관련 변인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울과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과 문제해결력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속변인이 인터넷중독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인터넷중독은 부모의 양육태도(r=-.169, $^{**}p$<.01), 의사소통유형(r=-247, $^{***}p$<.001), 가족응집력(r=-.156, $^{**}p$<.01), 문제해결력(r=-.1158, $^{**}p$<.01), 자기통제력(r=-.241,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r=.205, $^{**}p$<.01)은 인터넷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가족 간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으로 양육을 할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질 경향성이 적다. 반면에 우울이 심할수록 인터넷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가족·개인변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의 가족변인과 우울,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력의 개인변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가족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유형, 가족응집력과 개인관련 특성인 문제해결, 자기통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7.912, p<.001). 통계적으로

표 1. 가족, 개인변인과 인터넷중독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1. 부모의 양육태도	-						
2. 의사소통유형	.655**	-					
3. 가족응집력	.591**	.598**	-				
4 문제해결력	.263**	.260**	.335**	-			
5. 자기통제력	.281**	.289**	.276**	.355**	-		
6. 우울	-.154	-.224**	-.148**	.005	-.187**	-	
7. 인터넷중독 총점	-.169**	-.247***	-.156**	-.158**	-.241**	.205**	-

* p<.05, $^{**}p$<.01, $^{***}p$<.001

www.kci.go.kr

의미 있게 드러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변인인 우울이 가장 높았고, 자기통제력, 의사소통유형, 문제해결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오늘날의 가족 구조 및 생활문화의 변화 역시 인터넷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은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로 자녀들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는 부모나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나 의사소통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주거환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타인이 배제된 독립적인 공간을 익숙하게 하여 상대에 대한 배려나 적절한 통제력을 기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가족 분위기는 인터넷의 자극적인 내용에 쉽게 노출할 기회를 주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가족응집력의 변인으로 가족변인을 상정하고, 인터넷 중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초기 경험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발달과 성격형성, 행동양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양육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charff, 1996).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조춘범, 2001: 남영옥, 2002)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면서 비일관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높아지고(류진아・김광웅, 2004), 음란물 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와(남영옥, 2002)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부모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심란희, 2004), 효율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밀희, 2003). 이는 가족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윤재희(1998), 정경란(2001), 김진희(2006)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에서 가족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가 일방적이거나 개방적이지 못할 때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황상

표 2. 가족, 개인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표준화된 Beta	t	R^2	F
인터넷 중독	가족 변인	부모의양육태도	.021	.484	.118	17.912***
		의사소통유형	-.149	-3.256***		
		가족응집력	.023	.558		
	개인 변인	우울	.076	4.535***		
		자기통제력	-.128	-3.699***		
		문제해결력	.146	-2.212*		

* $p<.05$, ** $p<.01$, *** $p<.001$

www.kci.go.kr

민, 2002), 부모 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심수민, 2000; 조춘범, 2001). 또 본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다는 김정화(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의사소통유형에서 볼 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일수록 또한 가족 간의 응집력이 강한 가족일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덜 빠져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Young(1999)이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려면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가족응집력은 자기통제력이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김진희(2006)의 연구에서처럼 자기통제력이나 우울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접어들기 위한 과도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방황하거나 우울에 빠지기 쉽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높고(염영란, 2007; 윤재희,1998) 우울이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Young(1996), 양돈규(2000), 정경란(2001)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미숙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중독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자기통제가 낮은 청소년은 가상공간의 상황을 현실세계로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얻는 안락함에 안주할 것이기 때문에(소현하, 2008) 강한 유인력을 가진 게임이나 메신저등과 같은 것에 중독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임미영(2007), 남동현(2007), 김세영(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들은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이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송원영(2006)은 이 문제의 원인을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문제해결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인지적인 왜곡을 보이며 문제해결 상황을 부정적 감정으로 대하여 전반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특히 우울, 자기통제력, 의사소통유형, 문제해결력은 인터넷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척도 나열 순으로 인터넷중독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이다. 따라서 우울의 원인을 탐색하고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서 우울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간에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며 폐쇄적인 의사소

www.kci.go.kr

통이 아니라 일치적이고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주며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 가족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때 가능하다. 특히 가장 민감하고 탈권위적이며 저항적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들과 함께 의사소통 교육을 시켜야한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일치적인 나 메시지나 개방적인 의사소통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만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가족안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의사소통의 패턴을 바꾸므로 자신의 문제를 내놓으며 이해받고 이해하는 정서적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참 고 문 헌

권정혜 (2000).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한국심리학회. 270-271.

권희경, 권정혜 (2002).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03-514.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화 (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중술, 김영미 (1992). 우울증환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정신의학, 17(2), 130-138.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 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 (2006). 인터넷중독 대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해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영 (1999).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동현 (2007).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영옥 (2005).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의 심리적 특성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진화, 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65-80.

박성숙 (2006).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 자존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미나 (2002).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행동에 미치는 교화.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현하 (2008). 청소년의 자기통제, 대인불안 및 인터넷 중독이 메신저 몰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www.kci.go.kr

심란희 (2004).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수민 (2000).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부모자녀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염영란 (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윤광숙 (2004).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재희 (1998).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경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님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 통제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77-91.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유경 (2002). 컴퓨터 게임 중독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아 (2000).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유형에 따른 특성과 인터넷중독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3), 27-49.

임미영 (2007). 중학생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대인관계능력 및 인터넷 중독경향성의 상호연관성.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6). 성인인터넷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미영 (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장재홍, 이은경, 장미경 (2004).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정경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밀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춘범 (2001).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겸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임상, 11(1), 65-76.

주애란 (2006). 중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진영희 (2002). 부모자녀 애착 및 부모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태도, 자기 통제력이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나야, 한유진 (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2), 209-21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대한민국 에니메이션산업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대한민국 에니메이션산업백서.

허미리 (2003).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안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상민 (2002). 몰입과 채팅의 심리: 인터넷 몰입과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지식문화재단.

Czikszentmihalyi, M., & LeFevre, J. (1989). Optimal Experience in Work and Lei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15-822.

Kraut, R. Lundmark, V., Pattersin, M., Kiesler,

www.kci.go.kr

S.Mukopadhyay, D.,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031.

Kraut, R., Mukhopadhyay, T., Szczypula, J., Kiesler, S. & Scherlis, W. (1998).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lternative uses of the internet in households.* In Proceedings of the CHI 98(pp.368-383). New York: ACM.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London: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4(2),* 115-124.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Zenhausen, B. (1995). *Preliniary Draft of the DSM-IV.* Comminity on Cyberdisorders .Posted to Listserv:Virtpsy, Feb.26.

원고접수일: 2008년 12월 29일
게재결정일: 2009년 3월 3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1, 41 - 51

The Effect of family and personal variable of internet addicted young adults

Kyung-Ae Park
Kwang 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ee-Sue Kim
Hansei University
the college of liberal arts

Hwa-Ja Lee
Aha Institute
course of counsel

Ok-Hee Kim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family and personal variable of internet addicted young adults.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re th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communication, family cohesiveness and the self-related variables are problem-solving skills, self-control capacity, depression .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950 middle schooland high school students sampl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correlation relation of diverse variables and internet addiction .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communication, family cohesiveness, problem-solving skills, self-control capacity with internet addiction are negative correlation, anddepression with internet addiction is positive correlation. We analyzed regression to find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The order of explanation force aredepression. self-control capacity, communication pattern and problem-solving ability.

Keywords: internet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family cohesi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control, depression

www.kci.go.kr